

제 목 : 4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최

■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

- ① **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** :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
- ② **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** : 오픈뱅킹,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
- ③ **협력적 생태계 조성** :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·소통 강화

■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유용성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하되,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기본으로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

1 제4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개요

□ '20.11.12(목) 제4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가 개최되었습니다.

- 일시 : '20.11.12(목) 14:00~15:30 / 장소 : 영상(코로나 19 감안)
-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

공동주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● 정순섭 서울대 교수
금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김근익 수석부원장
금융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●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●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●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
빅테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김용진 서강대교수 ●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●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● 류준우 보맵 대표
학계 등 전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정준혁 서울대교수 ●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● 강경훈 동국대교수 ●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● 홍대식 서강대교수 ●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
노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최재영 금융결제원(금융산업노조 추천) ● 김준영 신한카드(사무금융노조 추천)

-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
- 마이데이터(MyData) :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, 신용·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



-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: 금융회사·공공기관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, 타 금융회사,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

-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·수준,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.
- 특히, e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은 어떻게,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.
-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의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용성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
 -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,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,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.
 - 이에,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*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
 - * 예 : 00브랜드 레이스 원피스 → 여성의복, △브랜드 선크림 → 화장품
-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,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.

(1)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

- 도규상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·유일의 정책사례라면서
 -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,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
- '21.2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가 출현한다면,
 -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을 행사하게 됨과 동시에, 금융 산업의 내 경쟁과 혁신 강화,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

(2)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

-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는 다음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.

①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고려

- 독립적·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
-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, 금융상품 판매·권유 위주의 영업 지양

②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장성 제고

-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과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, 오픈뱅킹,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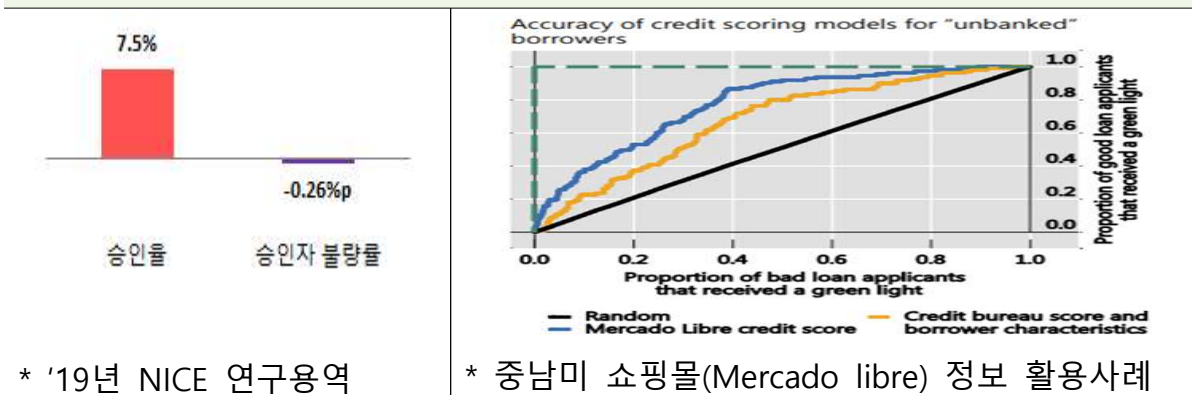
③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

- 제도 설계~운영의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, 비금융회사, 시민사회 단체 등의 목소리를 수시 청취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
- 필요시,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,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노력 추진

1. 주문내역정보의 성격 및 활용범위

-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「신용정보법」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.
- 「신용정보법」 제정('95)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써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
-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.
- * 유통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(연구용역), 국내 e커머스 사업자의 신용평가시 유통정보 활용사례, 中 즈마신용 등의 상거래 구매내역의 신용평가 반영 현황 등 검토

유통·주문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



- 또한,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,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여
-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.
- * 예: ① 소비행태·성향 분석을 통해 특화 금융상품 개발·추천 알고리즘 개발
② 주문내역정보 기반 고정지출 추정 → 부족자금과 잉여자금 정보 관리
③ 주문내역 정보 기반 소비지출 관리 솔루션 정교화

2.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

-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 -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,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**일반 개인정보***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나
 - * 예 : 신발 사이즈 235mm 등
 -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
-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만큼, 업권간 상호 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
 - 또한,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,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.
- ⇒ 신용평가에 활용가능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다만,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,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
4 향후 추진계획

- 먼저,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.
 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,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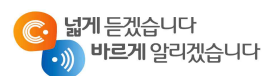
-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-win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.
-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, 주요 e-커머스 사업자,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·속도감 있는 논의
-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와 연계하여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 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 제고
- 최종 협의결과는 「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」에 포함하여 문서화하여 운영 (관련 불확실성 등 해소)
-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*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- * 프로그램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의사소통 규칙
-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.
-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
-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·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활성화 유도
- *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정·삭제요구권, 금리인하 요구권,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 가능
-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들의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입니다.
- 금융위·금감원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개최 추진

< 별첨 : 제4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모두말씀 >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